

금호타이어 후원 레이싱팀 국제대회 정상 ‘우뚛’

대형화재 악재 딛고 금호 SL모터스포츠팀 국제대회 1·2위 차지
금호타이어 장착 비후원팀도 3위…세계 최상 타이어 기술력 뽐내

대형화재 피해를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후원해 온 레이싱팀이 국제 대회 상을 휩쓸며, 세계 최상의 타이어 기술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후원 팀이 아닌 금호타이어를 사용한 다른 팀까지도 시상식 연단에 올라 금호타이어의 레이싱 기술력을 증명해냈다는 평가다.

1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금호SL모터스포츠팀이 지난 14일 인제 스피드움에서 열린 ‘2025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 3라운드 ‘인제 나이트 레이스’에서 더블 포디움(레이싱 경주에서 한 팀의 선수 2명이 시상대에 오르는 것)을 차지했다.

이창욱 금호SL모터스포츠 선수는 3라운드 경기

내내 압도적인 기량과 안정된 레이스 운영을 보여줬다. 특히 예선 1위로 결승 최선두 그리드를 선점한 이 선수는 처음부터 단 한 차례도 선두를 내주지 않는 ‘폴투윈’ (출발 그리드의 맨 앞자리에서 출발하여 우승)을 차지하며 개막전에 이은 시즌 2승을 달성했다. 그는 결승전에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 ‘패스티스트 랩(Fastest Lap)’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금호타이어의 기술력과 팀의 저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같은 팀 노동기 선수도 뛰어난 활약으로 주목을 받았다. 노 선수는 지난 라운드 접촉 사고로 5그리드 강등 페널티를 받아 결승에서 7번 그리드 출발의 핸디캡을 안고 출발했지만, 뛰어난 경기력으로 2위를 차지했다.

또 금호타이어를 장착한 비후원팀 브랜뉴 레이싱의 헨잔 료마 선수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부터 3위까지 금호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이 휩쓸며 금호타이어의 레이싱 기술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우승을 차지한 이창욱 선수는 “완벽한 퍼포먼스의 타이어를 준비해 준 금호타이어, 뛰어난 전략을 이행한 팀원을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전 세계 주요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공식 타이어 공급 업체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모터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계 최정상 투어링 대회인 ‘KUMHO FIA TCR World Tour’ 타이틀 스폰서 자격을 확보하며 기술과 성능 경쟁력에서 글로벌 정상 of 기량을 뽐내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퍼포먼스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금호 SL모터스포츠 드라이버 노동기(왼쪽부터) 선수, 이창욱 선수, 브랜뉴 레이싱 헨잔 료마 선수가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친환경·럭셔리 시장 잡는다”…제네시스, 전기차로 유럽 공략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진출
유럽 내 진출국 7곳으로 확장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유럽 진출 4년 만에 진출국 확장을 발표하고, 다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 자동차 시장에 고급 전기차를 공급해 영국·스위스 등 유럽 총 7개국에 자리잡겠다는 구상이다.

제네시스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망에서 열린 르망 24시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4개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제네시스가 2021년 독일, 영국, 스위스 진출로 유럽 시장에 발을 담은 지 4년 만이다. 제네시스는 유럽 5대 자동차 시장(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에 모두 브랜드를 선보였고 유럽 내 진출국을 총 7개국으로 확장했다.

제네시스가 신규 4개국에 선보일 차량은 GV60,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 등이다. 차량 인도 시점은 내년 초이며 국가별 판매 방식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제네시스는 유럽 자동차 시장에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그에 따라 친환경



제네시스 G80 전동화모델.

<제네시스 제공>

경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 등 4개국의 고급차 시장 규모는 93만여대로 그 중 전기차(BEV)는 21만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프랑스는 럭셔리 소비 문화가 발달하고 고급차 중 전기차 비중이 27%를 차지하는 등 유럽 럭셔리 전기차 시장의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메리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독

일 3사가 유럽 고급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제네시스의 유럽 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지난해 제네시스의 유럽 판매량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2607대에 머물렀다.

이에 제네시스는 올해 르망 24시 참가, 모터스포츠 출전 등을 통해 유럽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알릴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

지프, 랭글러 ‘모히토’ 에디션 30대 한정 판매

‘데이-글로우 그린’ 색상 적용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더운 여름을 맞아 지프 랭글러 한정판 컬러 ‘모히토 에디션’을 국내 30대 한정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모히토 에디션은 ‘데이-글로우 그린’ 색상이 적용돼 이름처럼 청량한 외관이 특징이다. ‘스탠다드(Standard)’ 에디션과 ‘비드락 휠(Beadlock Wheel)’ 에디션 중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스탠다드가 기존과 동일한 8340만원, 비드락 휠 에디션은 8640만원이다.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는 “모든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담한 컬러 에디션으로 모험과 자유의 상징적 존재로서 지프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지프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브랜드로서 고객들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기아 ‘PR 어워즈 아시아-퍼시픽’ 환경 부문 금상

오션클린업과 캠페인 진행 등 결실

기아는 “2025 PR 어워즈 아시아-퍼시픽(PR Awards Asia-Pacific 2025)’에서 환경(Environmental) 부문 금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PR 어워즈 아시아-퍼시픽’은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문지 ‘캠페인 아시아 퍼시픽’이 주관하는 글로벌 PR 시상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성과를 거둔 기업과 브랜드, 캠페인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기아는 네덜란드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목표와 성과를 강조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아와 오션클린업은 전 세계 바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친 점을 인정받았다.

앞서 2022년 오션클린업과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은 기아는 페플라스틱이 전 세계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아는 오션클린업이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에서 100회 이상의 페플라스틱 수거 활동으로 453 t 이상의 쓰레기를 제거한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했다. 또 지난해 세계 최초로 해양 페플라스틱으로 만든 차량용품을 개발하고 해당 과정을 설명하는 미디어 교육 자료를 제작해 선보였다.

류창승 기아 고객경험본부장 전무는 “이번 수상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아의 혁신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감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국타이어, 기아 첫 전기 세단 EV4 타이어 공급

사계절용 ‘아이온 에보 AS’ 전비 효율·접지력·저소음 등 강점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기아의 첫 전기 세단 EV4에 사계절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품에는 전기차 특화 기술 ‘아이온 이노베이트브 테크놀로지’ 설계가 적용돼 뛰어난 전비 효율과 접지력, 저소음, 낮은 회전 저항 등으로 주행 성능을 높였다.

아이온 에보 AS에는 친환경 소재와 고농도 실리카를 결합한 전기차 전용 최신킴파운드와 최적저온 균일 고무 경화 기술 등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기아 EV 시리즈 중 최대 주행거리(533km)를

갖춘 EV4의 배터리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계절용 타이어답게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 겨울철 눈길에서도 탁월한 접지력과 핸들링 성능을 발휘한다. 저소음 특화 설계로 쾌적한 승차감도 제공한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계기로 기아 전동화 프로젝트 핵심 조력자로서 위상을 강화했다”며 “기아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과 EV3에 이어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